신앙 간증

제천 / 김 기 순

모든 것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제천에서 시온성교회를 섬기다가 2009년 백운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2006년부터 건강이 안 좋아 몇 번의 수술을 하고, 2012년에 협착증으로 척추 수술까지 받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의 권유를 받아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주일을 병원에서 보내자니 아프고 슬프기만 했었다.

그런데 다음날 우리 교회 신상균목사님의 주일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복 받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시간과 건강과 미래가 있기에 주일인 이 날 여기에 온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깊이 감동하고 그날부터 아파도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간호사들이 모두 놀란 얼굴로 같이 웃어 주었다.

퇴원하고 곧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몸은 더 아프고 힘이 들어서 1분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남편까지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는 두통과 다리에 쥐가 나서 힘이 없어 차까지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기도회에 참석하며 이십일 째 기도회에서 기도하던 중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대로 손이 올라가고 진동이 오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사순절 기도회를 마친 후 3년 전부터 먹어야 잠을 자던 안정제도 끊을 수 있었고, 아들에게서는 승진의 소식이 날아왔으며 남편과 나는 우리교회 정남미사모님이 부부상담해주신 대로 서로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어느새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는 시간시간을 살고 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질병의 한가지까지 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 감사 찬양을 올린다.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백운교회 노인대학,대학원생 활동보고

【노인대학】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9편 노인대학 운영규정에 의거 1982년에 설립되어 노인회의 중견지도자를 육성하고자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총 2,283명(남 1,749명. 여 5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2015년에는 제34기 노인대학에 69명(남26명. 여43명)의 노인대학생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노인대학원 : 심상덕, 이양하〉

〈노인대학 : 배무남,백영관,유해선〉

▧**교육목적** ①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존경 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②그들에게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③노인 각자가 지니는 잠재능력을 재개발시키고 ④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다.

【노인대학원】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어르신(남부면 경로당노인대학 졸업생 포함)들의 끝없는 요청에 힘입어 2015년도에 제1기 노인대학원을 개설하여 현재 76명(남41명. 여35명)의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백운면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은 타 지역에 비해 학구열이 높아 노인대학에 14명(20%) 노인대학원에 6명(8%)이 현재 열심히 수강 중이다.

3월 초 입학식을 시작으로 월 2회(둘째. 넷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1일 3시간씩 운영 중이다.

▧**강의내용** 대학교수, 노인문제전문가 등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양과목, 국내외정세. 노후의 건강관리 등 다양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실내교육과 아울러 현장학습 기회와 연극공연 관람, 영화관람과 현장학습 등 다양한 실외교육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11월까지 1년 과정의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12월 초 졸업식을 하게 된다.

초대인사 백운중학교 교장 박 현 석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 1일 자로 백운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박현석입니다.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 좋은 고장,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별들이 많이 뜨는' 백운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백운중학교에 근무한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착하고 순수한 백운중학교 학생들, 학교 교육에 무한히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백운중학교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운중학교는 꿈과 창의성이 있는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 상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백운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이 인간성과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멋진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배려와 나눔,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모든 학생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최고의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백운중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과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명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더 넓고 큰 꿈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온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백운은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 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행복해야 합니다.

백운중학교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런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학교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 백운중학교 학생들이 내 아이처럼 따뜻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서로 돕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산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아이, 네 아이 나누는 것이 아닌,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